

GIST, 시각과 청각의 경계 넘는 배리어프리 미디어 기술 선보여

- 융합기술학제학부 송은성 교수와 학사과정생들, 10월 19일부터 열리는 제2회 부안 무경계 페스티벌 날다(F.L.I) 참가... 문화예술 접근성 높이는 전시 부스 운영
- 사용자의 음성을 실시간 시각화하고, 사용자가 그린 그림을 곧바로 음악으로 표현... "장애인-비장애인 소통 기회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무경계 실현하고 싶어"



인터랙티브 아트 I / 인터랙티브 아트 II

모든 소리가 움직이는 형태로 변화한다.
GIST 융합기술원 연구진들이 만들어낸
특별한 예술체험

GIST 융합기술원 ▲
위에서 부터 김예훈, 윤민석, 이현호, 송은성 교수, 김은영 학생

Festival
날다

▲ (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)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예훈·윤민석·이현호·김은영 학생, 융합기술학제학부 송은성 교수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융합기술학제학부 송은성 교수(지도 교수)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학사과정생들(이현호·김예훈·김은영·윤민석·조용환)이 '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장: 제2회 《부안 무경계 페스티벌 날다(F.L.I)》 락 페스티벌'에 참여한다고 밝혔다.

GIST는 인터랙티브 아트(interactive art) 예술 체험 부스 2개에 ▲'상호작용형 음성 동적 시각화 시스템'과 ▲'비주얼 아트 기반 자동 음악 생성' 시스템을 전시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배리어프리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.

* 자동 음악 생성: 특정 알고리즘이나 프로세스를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 음악이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며, 비주얼 아트와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창작되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낸다.

사용자가 내는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'상호작용형 음성 동적 시각화 시스템'은 두 사용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음량 변화에 따라 시각적 그래픽을 생성하고, 이를 통해 청각적 경험을 시각적으로 확장하여 몰입감 있는 다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.

사용자 간 경쟁적 상호작용을 통해 **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**하며 동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* 작품이다.

* **인터랙티브 미디어** : 관객이 작품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를 의미합니다. 관객의 입력이나 행동에 따라 작품이 변형되거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이다.

'비주얼 아트* 기반 자동 음악 생성 시스템*'은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입력하면 그림 또는 사진을 곧바로 음악으로 자동 변환하여 누구나 자신의 창의력을 쉽게 청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.

송은성 교수는 "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시각과 청각의 경계를 넘으며 **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**,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무경계를 실현하고자 한다"고 설명했다.

팀의 리더인 이현효 학생은 "장애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의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고 **관객들 모두에게 감동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**"고 덧붙였다.

무경계 아카데미
2024. 10. 18. (금)
14:00~18:00
@석정문화관
배리어프리 강의를 통한
축제 기획자 인큐베이팅

무경계 댄스
2024. 10. 19. (토)
15:00~16:00
@ 부안군청앞 특설무대
댄스컴퍼니 미디어우스, 코스모스인아르 | 현대무용
랩댄 컴퍼니 | 댄스
정형일 발레 크리에이티브 | 발레
라스트포워드 | 비보잉

무경계 락 페스티벌
2024. 10. 19. (토)
16:30~20:30
@ 부안군청앞 특설무대
이기원 밴드
미8군 록밴드 (8th Army Rock Band)
브로콜리너마저
김장훈

제2회 부안 무경계 페스티벌
Festival
날다
Feeling
Living
Incubating

주최, 주관 | 부안군청 | 후원 | 부안문화재단 | 부안군청 | 부안군청

▲ 제2회 부안 무경계 페스티벌 날다(F.L.I) 포스터

한편, 부안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부안군,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후원으로 10월 19일 열리는 '제2회 부안 무경계 페스티벌 날다(F.L.I)'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서비스 및 공연 전 터치투어를 추가했으며, 락 페스티벌에서는 실시간 수어 통역, 액티브 자막, 휠체어 전용석을 마련하여 공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.